



“나는 당당한 전라도의 딸 광주 탐매치 기대하세요”

18~19일 '한·일 V리그 탐매치' 광주에 오는 빅스타 김연경 인터뷰

국내 여자 프로배구 최고의 스타 김연경(21·흥국생명)이 고향 전라도에 온다. 김연경 소속팀 이자 2008~2009 V리그 여자부 챔피언 흥국생명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광주광역시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금융가족배 한·일 V리그 탐매치에 GS칼텍스와 함께 한국대표팀으로 참가하기 때문이다. 김연경의 고향이 전라도라는 사실은 서기동 구례군수에 의해 최근 알려졌다. 한·일 V리그 탐매치에 흥국생명이 참가한다는 소식을 접한 서 군수는 광주배구협회 관계자에게 김 선수의 부모가 구례 출신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밝혀졌다.

“엄마·아빠 모두 구례가 고향”

경기도 안산 서초·안산 원곡중·수원 한일전산여고를 졸업한 김연경은 사실 경기도에서 출생해 자랐다. 하지만 아버지 김동길(53)씨가 구례군 토지면 원내리, 어머니 이금옥(49)씨는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가 고향이다. 따라서 구례 출신 부모를 모시는 김연경이 당연히 '전라도의 딸'인 것이다. 13일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연경은 “전남은 내 고향이죠. 구례에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시고 자주는 못가지만 1년에 1~2번 정도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요. 오는 5월초에도 할머니들을 찾아 볼 계획입니다” 라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또 김연경은 “이번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고향을 찾는 설레임과 함께 편안한 마음도 생깁니다”면서 “비록 친선경기이지만 한·일 배구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고향팬들에게 우승으로 선물을 전해주고 싶겠다”며 굳은 결연의지도 밝혔다. 중·고 시절 전지훈련차 광주에 자주 왔다는 김연경은 “광주는 고향이나 다름없을 뿐더러 학생선수 시절 가끔 내려와서 송원여중·고와 연습게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대표나 정규리그 MVP 선정 등 김연경에 대한 기쁜 소식이 들려면 지금도 고향에 플래카드가 걸렸다는 전화를 받기도한다고 웃음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기 중 징크스와 남자친구는 없다고 밝힌 김연경은 “가수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sorry, sorry) 노래를 즐겨듣고 음식은 가리지 않고 잘 먹지만 특히 닭도리탕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전라도 특유의 근성을 타고난 김연경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파워 넘치는 공격으로 국가대표 핵심선수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프로 리그에서도 그녀의 투혼은 더욱 빛을 발했다.

김연경은 지난 11일 끝난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에서 소속팀 흥국생명을 우승으로 이끈 일등공신.

GS칼텍스와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혼자 33점의 맹활약을 지낸 GS칼텍스에 당한 패배를 설욕하면서 팀을 2년만에 챔피언의 자리에 끌어올려 놓은 것이다.

또한 김연경은 MVP 투표에서도 28표 중 무려 24표의 절대적인 지지로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올해로 프로 4년차인 김연경은 프로 초년배 부터 '확실한 재목'으로 예상되었다. 192cm의 큰 키에 뛰어난 순발력과 두둑한 배짱까지 갖춘 김연경은 프로 입문 첫해인 2005~2006 시즌에 흥국생명을 바로 여자부 챔피언에 등극시키며 '무서운 신인'으로 떠올랐다. 또한 그 해 신인왕과 정규리그 MVP, 챔피언결정전 MVP까지 거머쥐었으며 다음해 2006~2007 시즌에도 정규리그 MVP, 챔피언결정전 MVP를 차지했다.

슈퍼주니어 '쏘리 쏘리' 즐겨들어요

또 팀이 챔피언 준우승에 그친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 MVP는 빼앗기지 않고 품에 안았다.

국내 여자프로배구 최성상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김연경이 이제는 더 높고 먼 곳을 향해 뛰고자 한다.

지난 챔피언 우승 후 이탈리아나 일본 프로배구에서 외국 선수들과 겨뤄보고 싶다고 밝혔던 김연경은 “아직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해보고 싶다” 며 해외 진출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한다.

올 시즌을 끝으로 해외진출을 꿈꾸는 김연경은 “세계 무대에서 '전라도의 힘'을 마음껏 발산해 고국의 명예도 한껏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김연경은

- ▲ 생년월일: 1988년2월26일
- ▲ 출신학교: 안산 서초, 안산 원곡중, 수원 한일전산여고
- ▲ 신체조건: 키 192cm·체중 73kg
- ▲ 취미: 음악감상, 수다떨기
- ▲ 즐겨듣는 음악: 슈퍼주니어 'sorry, sorry'
- ▲ 좋아하는 음식: 닭도리탕
- ▲ 별명: 보거스, 귀염둥이

- 주요 국가대표 출전 경력
- 2005년 월드컵대회, 2006년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도하아시안게임, 2007년 월드컵

- 주요 수상 경력
- 2005~2006 V-리그 챔피언결정전 MVP, 정규리그 MVP, 신인상, 득점상, 공격상, 서브상, 트리플크라운, 2006~2007 V-리그 챔피언결정전 MVP, 정규리그 MVP, 공격상, 2007~2008 V-리그 정규리그 MVP, 공격상, 트리플크라운, 2008~2009 V-리그 챔피언결정전 MVP

KIA 탈꼴찌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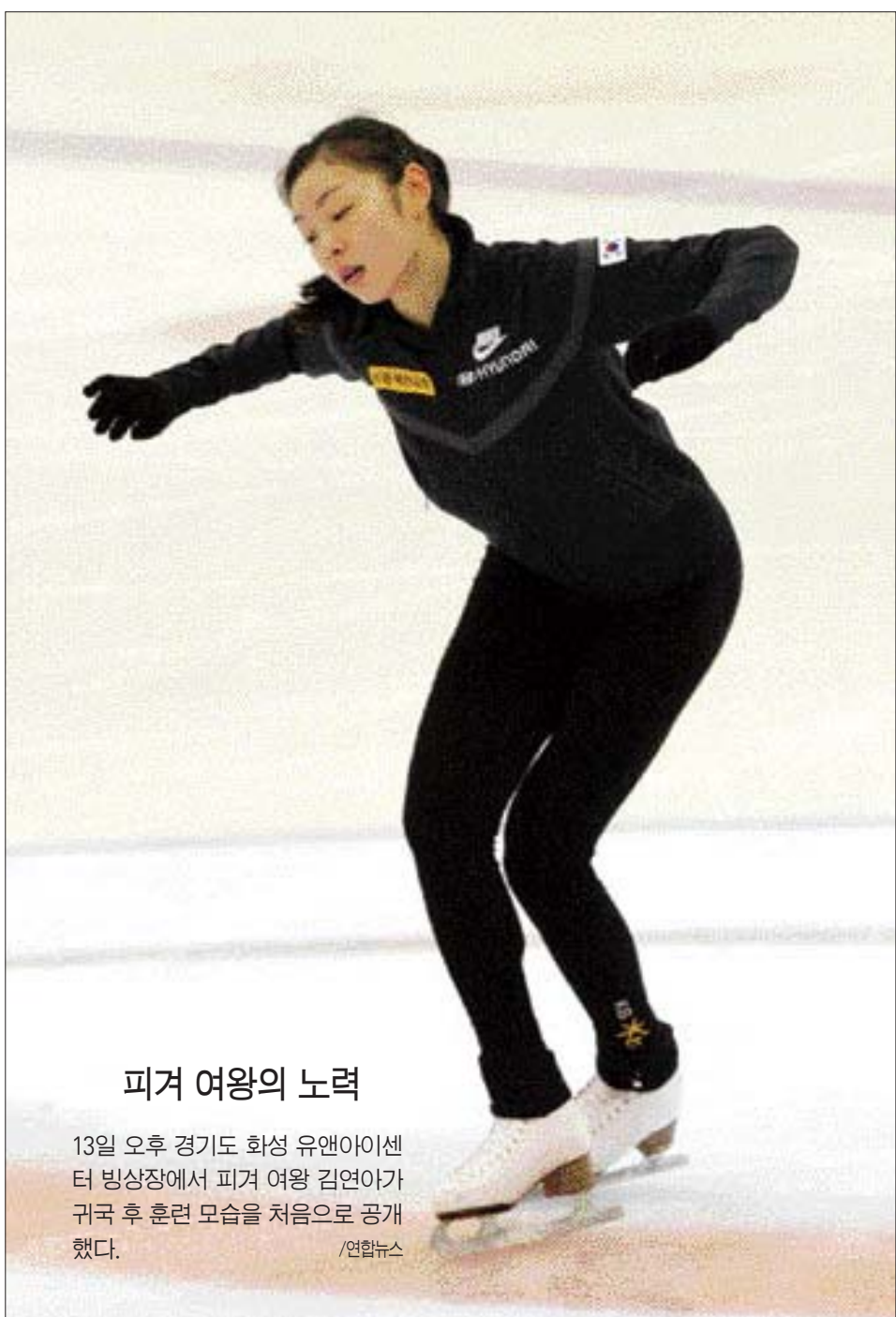


사직·잠실 원정 6연전 ... 방망이 회복 승수쌓기 관건

방망이에 KIA 원정 6연전의 운명이 걸렸다. 2승1무5패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사직에 이어 잠실 원정에 나서 탈꼴찌에 도전한다. 상대는 공동 6위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다. 롯데와 LG가 각각 3승5패로 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0.5게임차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KIA는 14일부터 사직에서 롯데와 주중 3연전을 벌이게 된다. 17일에는 잠실로 올라가 LG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마운드 전력은 KIA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 6선발 체제를 도입한 KIA는 지난주 홈 6연전에서 구본승-서재응-곽정철-이대진-윤석민-양현종을 마운드에 가동시켰다. 6명의 선발은 38과 3분의 1이닝을 10실점으로 막으며 2.3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10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이대진이 3이닝 동안 4실점하며 부진했지만, 이날 중간으로 등판한 로페즈가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며 선발진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막강 선발에 한층 촉촉해진 불펜진은 3.1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SK 와이번스와 함께 평균자책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롯데와 LG의 평균자책점은 5.03과 5.01에 이르고 있다. 든든한 KIA마운드에서 특히 윤석민과 양현종의 피칭은 눈부셨다. 4일 시즌 개막전에서 5이닝 6실점으로 패전의 멍에를 썼던 에이스 윤석민이 11일 삼성전에서 9이닝동안 6피안타 7탈삼진 1실점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선보이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선발진 중 유일한 좌완 양현종은 12일 8이닝 무실점의 무결점 투구로 팀의 2연패를 끊으며 마운드의 새 희망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방망이다. KIA가 지난 홈 6연전에서 뽑은 점수는 15점에 불과하다. 6경기에서 49개의 안타를 때려냈지만 잔루도 49개나 된다. 나지완이 6경기에서 2개의 안타를 뽑는데 그쳐 타율이 0.090에 불과하고, 삼진은 7개를 때렸다. 거포 이재주도

개막 이후 16번 타석에 들어섰지만 안타를 기록하지 못한데다 9차례 삼진으로 돌아섰다. 중심 타자들의 침묵 속에 KIA는 팀 타율(0.225), 팀 홈런(5개), 장타율(0.303), 출루율(0.300)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타선의 잇박자가 계속되면서 윤석민은 9이닝 1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고도 팀이 연장 10회 1-2로 지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기도 했다. 타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야수들은 이동일인 13일에도 방망이를 휘둘렀다. 광주일고는 첫 선수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특별 타격훈련을 한 뒤에야 부산행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이번 주 KIA와 맞붙게 되는 롯데와 LG의 팀 타율도 0.255, 0.253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어느 팀 타선이 먼저 살아나느냐에 따라 세 팀의 표정이 엇갈릴 전망이다. 극명한 '투고타저'에 시달리고 있는 KIA는 14일 용병 구본승을 전면에 내세워 2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겨 여왕의 노력

13일 오후 경기도 화성 유엔아이스터빙상장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가 귀국 후 훈련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연합뉴스

카브레라 '그린재킷' 마스터스골프 우승



아르헨티나의 골프 영웅 양헬 카브레라가 2009시즌 첫 메이저대회 제73회 마스터스골프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카브레라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파 72·7천43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후반 맹활한 기세로 추격전을 펼치 케니 페리, 채드 캠펠(이상 미국)과 12언더파 276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두번째 홀에서 승리를 낙았다. 카브레라는 2007년 US오픈에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우승을 올린 뒤 마스터스 그린재킷까지 입어 PGA 투어 2승을 모두 메이저대회에서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18번홀(파4)에서 속격연장 첫번째 홀에서 캠펠이 보기로 물러나고 장소를 옮겨 10번홀(파4)에서 펼쳐진 두번째 대결에서 카브레라는 두번째 샷 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뒤 2퍼트로 마무리했다. 동반 플레이를 펼친 세계랭킹 1위 타이거 우즈와 2위 필 미켈슨(이상 미국)의 맞대결은 최종 라운드의 또다른 볼거리였다. 우즈와 미켈슨은 버디를 쓸어 담으며 맹렬한 추격전을 벌였지만 선두와 타수차가 너무 컸다. 미켈슨은 버디 8개에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를 묶어 5타를 줄였지만 9언더파 279타로 4위, 우즈는 17번홀과 18번홀(이상 파4)에서 나온 연속 보기에 발목이 잡혀 8언더파 280타로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